

최형우 등번호 ‘34’

KIA 새 유니폼…“양보한 홍구 고맙다”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가 익숙한 ‘34번’ 유니폼을 입고 뒀다. 최형우가 6일 FA 계약 이후 처음으로 KIA 유니폼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다. 공식 입단식 자리는 아니었다. 연말 프로야구 시상식 일정 등이 이어지면서 입단식이 사실상 내년으로 미루지자 최형우는 유니폼 사진으로 KIA 팬들에게 먼저 인사를 올렸다.

예상대로 최형우는 삼성에서 사용했던 34번을 쓰게 됐다. 앞서 34번을 사용했던 포수 이흥구가 흔쾌히 선배를 위해 번호를 양보한 것이다.

이흥구는 “연락이 되지 않더라는 인터뷰를 하셨더라(웃음).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 기간 최형우 선배님이 전화와 메시지를 남겨놓으셨다고 했는데 핸드폰 유심칩을 바꿔 놓아서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이다”며 “지난 2일 선수협회 총회 자리에서 처음 선배님을 보았다. 나를 보자마자 별 말 없이 웃으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하시는 지 알 수 있는 표정이었다. 당연히 양보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흥구는 “번호 양보해줬으니 선배님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장비도 얻어 써야겠다”고 웃었다.

최형우의 요청에 이흥구는 2013년부터 사용해왔던 34번 번호를 바꾸게 됐다. 아직 내년 시즌에 사용할 번호는 확정되지 않았다. 27번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투수 김윤동이 먼저 27번으로의 번호 변경을 요청해 두 상황이다.

이흥구는 “아직 번호를 못 정했다. 어차피 내년 시즌 끝나고 군대에 가야하고, 번호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번호보다는 어떻게 비시즌 운동을 할지, 내년 시즌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더 걱정이다”며 “캠핑 다녀와서 1주일 정도 쉬었는데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12월에는 경기장 출입이 안 되는 만큼 조만간 서울로 가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비활동기간인 12월은 KIA 선수들의 번호 이동으로 분주할 전망이다.

새로운 주인을 찾는 번호들이 있다. 서재응, 김민우가 올 시즌 은퇴를 선언하면서 9번 26번을 반납했다. KIA와 작별을 한 김병현의 45번도 있다. 또 강한울이 최형우의 보상선수로 이적하면서 13번이 비었고, 경찰청·상무 군입대가 확정된 선수들의 5, 38, 65, 69번도 새 주인을 찾는다. 여기에 현역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는 만큼 내년 시즌 대폭적인 번호 이동이 예상된다.

정식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도 있다. 이 중 올 시즌 ‘038’이라는 육성선수 번호를 사용했던 손영민은 선배 서재응이 사용했던 26번 유니폼을 입고 1군 마운드에 오를 준비를 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WBC 美 대표 화려해졌네

서저·포지·맥커친 등 MLB 스타 24명 출전

‘사이영성’ 투수인 맥스 서저, 최우수선수(MVP) 경력에 빛나는 버스터 포지와 앤드루 맥커친 등 메이저리그 스타들이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미국 대표로 출전한다.

AP통신은 6일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WBC 대표팀 초기 명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명단에 오른 30명 중 24명이 올스타 출신이다.

워싱턴 내셔널스의 오른손 투수 서저는 올해 내셔널리그 최고의 투수에게 수여하는 사이영상을 수상했다. 그는 2013년에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소속으로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포수 포지는 2012년 팀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을 때 내셔널리그 MVP 영예를 안았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해적 선장’ 외야

수 맥커친은 2013년 내셔널리그 최고의 타자로 인정받으면서 MVP를 거머쥐었다.

이들 외에도 우완 크리스 아처(탬파베이 레이스), 올 시즌 ‘홈런왕’ 놀런 아레나도(콜로라도 로키스), 외야수 애덤 존스(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미국 대표팀에 합류한다.

매니 마차도(볼티모어), 로빈슨 카노, 벨슨 크루스(이상 시애틀 매리너스), 아드리안 벨트레(텍사스 레인저스), 텔린 베탄시스(뉴욕 양키스)는 도미니칸 공화국 대표팀으로 뛸 예정이다.

펠릭스 에르난데스(시애틀), 미겔 카브레라(디트로이트), 카를로스 곤잘레스(콜로라도) 등은 베네수엘라 대표팀에 승선한다.

WBC 대표팀 최종 명단 제출일은 내년 2월 6일(현지시간)이다. /연합뉴스

SK 김광현 팔꿈치 수술 받는다…10개월 재활 예상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에이스 선발 투수 김광현(28)이 팔꿈치 수술을 받는다.

SK는 김광현이 5일 일본의 한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인대 접합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6일 밝혔다.

SK는 “재활을 통해 일정 기간 기량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수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치료하는 게 좋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광현은 병원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수술 이후 예상 재활 소요기간은 10개월이다.

사실상 2017시즌에는 김광현이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3월에 열리는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도 무산됐다.

SK는 “트레이 힐만 감독 및 코치진과 상의해 완벽한 몸 상태가 될 때까지 복귀를 서두르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김광현은 한국프로야구 최정상급 좌완 투수다.

올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김광현은 최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대신 4년 총액 85억 원의 조건으로 SK에 잔류했다. 팔꿈치 상태로 인해 메이저리그 진출 꿈을 미룰 수밖에 없었고, 계약 금액도 예상에 못 미쳤다. /연합뉴스

넥센 신재영, 류현진 안부럽네

연봉 307% 오른 1억1천만원 재계약

2016년 신인왕 신재영(27)이 넥센 히어로즈 구단 최고 연봉 인상을 기록했다.

넥센은 6일 “신재영과 2017년 연봉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신재영의 연봉은 올해 27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307.4%나 올랐다. 김하성이 2016년 연봉 협상을 하며 기록한 300% (4000만원→1억6000만원)를 넘어선 구단 신기록이다.

신재영은 “야구만 열심히 하면 보상과 대우가 따른다는 것을 느꼈다. 팀 역대 최고 인상률로 연봉을 책정해준 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 시즌은 신인왕 수상에 이어 만족스러운 연봉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 같다. 코칭스태프의 믿음, 동료 선후배 선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계약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역대 연봉에 진입한 만큼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팀 성적에 도움을 주는 것이 내년 시즌 목표다”며 “올 시즌만큼 던져서 승수를 보태야 한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캠프 기간에 보완하고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년 시즌에도 변함 없는 피칭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처음 1군에 진입한 신재영은 15승 7패 평균자책점 3.90을 기록하며 신인왕에 올랐고, 넥센은 역대 연봉으로 화답했다.

/연합뉴스



프로골퍼 박성현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16 KPGA 대상 시상식’에서 KPGA 인기상을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LPGA 신인왕 되겠다”

박성현, KLPGA 평정하고 미국으로

2016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를 평정한 박성현(23·넵스)이 푸짐한 상을 받고 미국으로 떠난다.

박성현은 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다승왕과 상금왕, 최저타수상을 받았다.

올 시즌 K.LPGA 투어에서 가장 많은 7승을 올린 박성현은 13억3000만원을 쌓아 상금 랭킹 1위에 올랐다. 또한 시즌 평균 타수 69.64타로 최저타수상도 받았다.

국내 투어와 함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도 병행한 박성현은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내년 LPGA 투어 출전권을 확보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시상식장에 나타난 박성현은 세 번째로 입었는데 여전히 어색하다”며 “마치 시집가는 기분”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날 시상식을 끝으로 공식 국내 행사를

마치고 이달 말 미국으로 향하는 박성현은 “미국에서 살 집(미국 올랜드)을 둘러보고, 내년 시즌 함께 할 코치, 캐디와 계약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내년 미국 무대에는 경쟁한 신인들이 등장한다고 알고 있다. LPGA 투어 신인왕으로서 조심으로 돌아가 시즌 1승과 신인왕을 목표로 세웠다”고 말했다.

올 시즌 박성현과 경쟁한 고진영(21·넵스)은 출전 대회 성적을 점수로 환산해 주는 대상을 받았다. 고진영은 대상 포인트 562점으로, 박성현을 1점차로 따돌렸다. 신인왕은 이정은(20·토니모리)에게 돌아갔다. 이정은은 이번 시즌 28개 대회에 참가, 상금 랭킹 24위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다.

리우 올림픽 여자골프에서 금메달을 따낸 박인비(28·KB금융그룹)와 감독으로 여자대표팀을 이끈 박세리(39·하나금융그룹)는 특별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박인비 세계랭킹 10위로 밀려

‘골프 여제’ 박인비(KB금융그룹)가 여자골프 세계랭킹 10위로 밀려났다.

6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박인비는 지난주 8위에서 10위로 두 계단 내려섰다. 올해 8월 리우 올림픽 금메달 이후 손가락 부상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박인비는 2017년 2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혼다 타이랜드 대회 출전을 목표로 재활 중이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리디아 고(뉴질랜드)에 이어 에리아 쭈타누간(태국), 전인지(하이트진로) 등 상위권 선수들은 변화가 없었다. 10위 내 한국 선수로는 전인지, 박인비 외에

김세영(미래에셋)이 6위, 장하나(비씨카드)와 유소연(하나금융그룹)은 나란히 8, 9위에 자리했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세계 랭킹 650위로 뛰어올랐다. 우즈는 지난 5일 바하마의 뉴프로비던스에서 열린 히어로 월드챌린지골프대회에서 15위를 기록, 898위에서 248계단이 상승했다. 우즈는 2015년 3월 29일 자 순위에서 104위로 밀린 이후 100위 이내로 재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제이슨 데이(호주),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더스턴 존슨(미국)의 1~3위를 지켰고 채미동포 캐빈 나가 43위, 안병훈(CJ)은 44위에 올랐다. 일본프로골프 투어 JT컵에서 우승한 박성현은 191위에서 125위로 도약했다. /연합뉴스

피츠버그 단장 “강정호,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다”

닐 헌팅턴 피츠버그 파이리츠 단장이 음주행소니 사고를 낸 강정호(피츠버그)를 향해 “정성적으로 돌아오게 돕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에서 음주행소니 사고를 낸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6일 오후 강남경찰서에 재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헌팅턴 단장은 6일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와 인터뷰에서 “강정호가 뛰어난 선수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정호는 2일 오전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호텔로 향하다 삼성여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됐다. 여기에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커졌다.

피츠버그 홍보 담당자는 “강정호를 영입할 때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당혹스러워했다.

피츠버그는 출장 정치 등의 징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노사협약에 따라 음주 관련 범죄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소화해야 한다. 이후에도 감시를 받는다. 헌팅턴 단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건, 강정호를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